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제3권 2호 (2013년 12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이  
기  
출  
판

## 현대사회와 다문화

**현대사회와 다문화**는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학술지로서 연 2회 발간합니다. 현대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현상과 문제들에 관한 독창성 있는 내용을 담은 학술 논문이면 기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고 제출 및 집필 요강은 본지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연락처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산캠퍼스 산학협력연구동 1413호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전화 053-850-4264 팩스 053-850-4265

이메일 [multiculture@daegu.ac.kr](mailto:multiculture@daegu.ac.kr)

###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및 편집위원회 임원

소장 김화수

운영위원 김동윤, 김명광, 김연희, 이민경, 이희영, 조태린, 최철영

편집위원장 최병두(대구대)

편집부위원장 이소영(대구대)

편집위원 강운선(대구대), 김명광(대구대), 김일환(성균관대), 박남수(대구대), 박선웅(한국교원대), 설동훈(전북대), 신혜란(서울대), 이기영(부산대), 이동석(Hiroshima University), 이민경(대구대), 이희영(대구대), 이수정(북한대학원대학교), 조현미(경북대), 최종렬(계명대)

편집간사 이교일

표지디자인 김수정

# 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

2013년 제3권 2호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 2호를 펴내면서 / 최병두

## 논문

---

다문화사회의 갈등과 기여에 관한 고찰 / 김판준 207

결혼 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  
대전 충남 사례를 중심으로 / 김옥 238

Predictors for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Young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 Yeun-hee Kim 264

다문화가정 자녀의 쓰기 오류 연구 / 이효인 · 김명광 286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 음악통합교육 / 정길영 306

Unity through Arts: Educational Program to Cultivate Harmony in Multi-cultural  
Society among Malaysian Children / Balamuralithara Balakrishnan · Ling Siew Woe ·  
Syed Osman Syed Yusoff · Khairulwafi Mamat · Mohammad Zahuri Khairani 338

## 현장탐방

---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안의 타자를 끌어 안다 / 이민경 358

## 서평

---

완득이(2008, 김여령, 창비) / 이영희 370



##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3권 2호를 펴내면서

외국인 이주자의 급증으로 우리 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지구-지방화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가 봉착해 있는 여러 문제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저임금 노동력과 결혼 배우자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과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이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대나 원주민들과의 갈등 등 우리 사회에 새로운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대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물론 국내로 이주·정착하게 된 외국인 이주자들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예로 정신적 충격이나 문화적 부적응의 문제 등도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인 이주자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이들이 겪게 되는 문제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국가나 지자체의 공식적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제도 및 활동 전반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인 이주자들의 자녀들에 대한 학교 교육은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사회공간적 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주요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호에 실린 6편의 논문들을 간략히 소개해 볼 수 있다. 우선 김판준의 논문은 다문화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이러한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기여할 바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은 기존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대책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다문화사회의 갈등 문제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현역 입대와 정체성 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 결여, 다문화 비용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정책, 이주자들을 일방적으로 소외계층으로 분류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사회적 기여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다문화 갈등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인재 확보와 고국 적응 훈련, 이주자 자녀의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개발, 역차별 없는 공정한 지원정책 수립,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장, 대학별 지자체별 상시적 교류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고 있다.

김옥의 논문, '결혼 여성이민자의 문화적 관습과 여성인권'은 여성의 역할 및 권리에 관련된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간 충돌 실태와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간 갈등 가능성에 관하여 이론적 논의 및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대전 충남지역 다문화 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및 심층 면접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여성의 역할과 권리를 둘러싼 갈등의 실태를 이들의 가족 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실태 파악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다. 한편으로는 다문화주의의 관점에서 소수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주류 문화와 통합할 필요성과 여성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에 거주하게 된 다양한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김연희(Yeun-hee Kim)는 특히 '탈북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예측 요인'을 연구하고자 한다. 그 동안 탈북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정신건강 상의 문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고찰은 매우 유의하다고 하겠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연구에 참여한 탈북청소년의 30.5%가 임상적 수준의 우울/불안을 겪고 있으며, 특히 13%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상 경험, 문화적응 스트레스, 남한에 친가족이 있는 것 등이 두 정신건강 문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 논문은 이러한 탈북 청소년의 정신건강의 문제와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들이 국내 정착생활을 하면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과 언어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효인·김명광의 논문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쓰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3학년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일기를 분석하고 이에 나타나는 쓰기 오류 양상을 통해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며 각 오류에 나타나는 언어·심리학적 원인을 고찰하고 있다. 분석 결과, 표기법 오류의 경우 형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나타나는 오류뿐만 아니라 발음상의 문제로 인한 오류가 많이 발견되었다. 문법 오류에서는 시제 오류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문법 형태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통사 오류의 경우 필수 성분이 생략되거나 문장의 호응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텍스트 오류의 경우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의미의 응집성이 부족하였으며 문어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어체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 간에 한편으로 다양성의 유지 및 함양,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통합과 조화의 문제를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가 된다. 정길영의 논문은 평생학습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성인의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음악교육정책의 도입 필요성과 음악교육이 다문화적 통합을 위해 기여하는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다문화적으로 통합된 음악교육은 다문화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 민요와 종교음악, 예술음악, 록, 재즈 등 우리 시대의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모두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상호문화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국가 등 외국의 문화를, 또 다문화인은 우리 문화를 경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을 포함하여 예술교육을 통해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 조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물론 우리 사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바라크리쉬난(Balakrishnan) 외의 논문은 말레이시아 청소년이 다문화사회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술을 통한 통합'을 강조한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식민지 시대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간 조화와 국가적 통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오늘날 말레이시아는 이러한 다문화사회에 바탕을 두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가적 의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회적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 논문은 말레이시아인들 간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어린 시절 학교교육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 논문은 예술교육이 전체 학습영역(즉 인지, 정신, 감정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아동 교육에 필수적이며, 이러한 유의성을 가진 예술교육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공동체들 간 조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출신 초등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 외에도 이번 호에도 '현장 & 현장 사람들'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안의 타자를 끌어 안고'자 하는 대구 이주민 선교센터 고정수 목사를 방문한 탐방기를 실었다. 이 탐방기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이주민 지원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나 현장을 탐방하고 느낀 점과 인터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번 방문과 인터뷰를 위해 수고한 이민경 교수는 이러한 탐방기가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이주 노동자 가정과 함께 해 온 그의 자취들을 통해 다문화 한국사회의 다양한 풍경들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호 서평에서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에 대한 사회적 시선과 국제 결혼한 한국남성의 이미지, 이주노동자의 삶이 짧지만 자연스럽게 묻어 있는 소설', 『완득이』(2008, 김여령, 창비)를 '다름'과 '동등'의 다문화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독해한 글을 실었다.

『현대사회와 다문화』가 창간된 이후 이번 호까지 3년이 지났다. 그 동안 학술지의 발간을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투고해 주고 또 기꺼이 심사요

청에 응해준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학술지가 무난히 발간될 수 있었던 것은 학교 차원에서 대구대학교 본부와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의 많은 지원과 더불어 편집위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원에 힘입어 올해는 학술지가 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면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 정책적 담론 구성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12월

편집위원장 최 병 두